

한옥마을·남부시장 일원, 관광특구 지정 본격

외국인 관광객 18만명 집계...
관광특구 지정 요건 충족
남부시장·전라감영 등 1.7㎢ 대상
국·도비 지원 규제 특례 등 혜택

전주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일원이 K-관광 성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근 지역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예상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한옥마을과 인근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남부시장, 한옥마을 및 주변 풍남동·중앙동 일원(0.3㎢)과 전라감영 등 총 1.7㎢ 규모다.

최근 진행된 외국인 관광객 추정 용역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18만명으로 집계돼 지정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도비 및 관광진흥개발 기금 지원, 규제 특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도적 기반 등이 조성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지정 신청, 6월 조사·분석 의뢰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8만 명을 넘어지면서 전주시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옥마을 일대 관



전주한옥마을
K-관광 거점 시동

전주시는 남부시장과 한옥마을, 풍남동·중앙동, 전라감영 일원 1.7㎢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전주한옥마을 전경

<사진=전주시>

관광특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한옥마을이 일본인들을 피해 전동, 풍남동 일대로 이주한 서문 밖 주민들과 이들을 따라온 중국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형성됐다는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시는 8월 초 편의시설, 제도 개선,

관광코스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관광특구 지정·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연말까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과 축제·행사 활성화, 도 개선, 연계 관광코스 개발, 토산품을 비롯한 관광상품 개발·육성 방안 등을 마련해 일대를 전주를 넘어 한국 관광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성과 일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며 “올 연말 관광특구 지정·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도와 문체에 지정 신청을 내고, 지정을 위한 공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당대표 첫날 ‘원팀’ 행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54.08% 득표...민주당 새 대표 선출
강훈식 비서실장과 당청 안정 협의
“정부·대통령 국정 뒷받침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18일 당대표 취임 첫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당청간의 안정을 협의한데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등을 참배하고, 518광주 묘역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난을 전달하러 온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만났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대표실에 들어온 게 처음이다”며 “오늘 당에 오면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강실장과 흥 수석을 뵈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뤄지겠구나 하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면서 당은 민생에 촉수를 펼쳐 새벽부터 전국을 돌면서 민생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민심을 청와대나 정부에 전달도 하고, 토론도 하겠다”며 “당정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청간의 협력과 안정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강 실장 면담 이후 신임 지도부와 서울 동작 현충원 참배를 시작



김민석 대표

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현충원 참배에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참석한 김 전 대

통령 17주기 추모식에서는 “막내 비서실장이었던 제가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돼 인사드린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때를 회고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추도사에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느끼는 실사구시, 민생 우선 사고의 공통성과 너무나 비슷한 경험이었다”며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총리가 됐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용산 효창공원 임시 정부 요인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에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 등 취임 후 첫날의 일과를 마쳤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실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45.92%)를 꺾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와함께 당 최고위원에는 (득표순)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위원이 선출됐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2027년 말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학생승마·유소년단 등 6개 분야
농촌관광 승마·시설 지원 확대
28일까지 시·군 축산부서 신청

전북도는 말산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승마·관광·체합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7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농여촌형 승마시설

지원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 분야로 추진된다.

학생승마체험은 학생 1명당 승마체험 10회와 보험료 등을 포함해 32만원을 지원하고, 유소년 승마단에는 장구 구입과 훈련·대회 참가 등에 개소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은 2~6세 어린 말의 5~6개월 위탁 조련비를 마리당 500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외승 프로그램과 승마시설,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등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단체, 승마시설 운영자 등은 사업신청서와 사업



전북도 지원 학생 승마체험

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시·군과 전북도의 타당

<사진=전북도>

성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되며,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의 서면·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말산업을 농생명산업과 관광·레저를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지난 2018년 전국 네 번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6년까지 총 156억원을 투입해 승마시설 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특구 지정 당시에 비교해 2025년 기준 도내 승마시설은 33개소로 44%, 말 사육업체는 177개소

로 33%, 정기 승마인구는 4,543명으로 85% 각각 증가했다. 전국승마대회 개최 횟수도 2018년 5회에서 2025년 23회로 늘어나는 등 말산업 기반과 저변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사업내용과 신청 절차를 홍보하고, 도내 말 사육농가와 승마시설, 관련 단체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말산업은 생산과 조련, 승마, 관광·체합을 연계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시민 중심,
옴 정읍

2026정읍
문화로대동

박창근 가을밤 콘서트

정읍시 홍보대사

2026.9.11.(금)
19:00~21:00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주최·주관 정읍시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道, 2026 을지연습 돌입...통합방위태세 점검

21일까지 3박4일 비상대응 훈련
불시 비상소집·전시직제 편성 점검
민·관·군·경·소방 협업체계 강화
20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 실시

전북도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도내 전역에서 '2026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도와 시·군을 비롯해 군·경·소방, 도내 주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올해 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

영, 도상연습, 실제훈련, 민방위훈련 등 실제 비상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최초 상황보고와 함께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 편성훈련에 들어간다. 이어 21일까지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19일에는 충무시설에서 상황보고와 도상연습을 진행하고, 오후 3시 정읍시 제2청사에서 민·관·군·경·소방 등이 참여하는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응 임무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도상연습과 정부상황평가 회의에 이어 오후 2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도는 훈련을 통해 비상시 주민 대피와 긴급차량 이동 등 현장 대응체



2026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이원택 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계를 점검하고 도민의 비상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아침 상황보고 등을 거쳐 4일간의 연습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을지연습을 마무리한다.

도는 20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과정에서 긴급차량 이동 등에 따른 일부 교통 통제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결단해야”

국립의전원 소재지 결정 절차 착수
“복지부 ‘서울 캠퍼스’ 미련 버려야”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 제안



박희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착공 전인 지금 남원 이전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는

다시 말해 복지부가 국립의전원 본 캠퍼스를 병원시설이 있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설치하고, 대신 남원 등 지방에는 의료원 분원 정도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년동안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를 추진해온 전북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남원으로 이전하고 남원의 국립의료원 인근에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서울 부지 확보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원국립의전원 부지

<사진=전북도>

국립의전원을 설치하여 필요한 지방의료인력을 양성하자고 복지부를 압박하면서 제안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37년 전 울산대가 의대를 설치하면서 실험 실습에 필요한 병원을 점근성과 환자 확보 등을 이유로 울산이 아닌 서울의 아산병원을 활용, 사실

상 지방의료 인력 양성에 실패했다”며 “국립의전원 본원이 반드시 남원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부처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안도하면서 “복지부가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김의겸, 새만금 메가특구·RE100산단 지정 ‘속도’

민관합동추진단 2차 회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메가 특구 및 RE100 산업단지단 성공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8월 4일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과 함께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메가특구 및 RE100 산단 지정에 대해 세부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신청 관련 진행 상황 및 대응전략 △RE100 산업단지 지정 신청 관련 진행 상황 및 대응전략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구축 방안 △로봇 부품국산화지원, 입주업체 취업지원금, 세제 인센티브 등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관 간



김의겸 의원

이번 조율을 비롯한 총괄 조정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주재하는 TF에서 주도하고, 메가특구 지정 신

청 등 세부 실무협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실무 차원의 신속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메가특구와 RE100 산업단지 지정에 이끔어내기 위해 국회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몸처럼 움직이겠다는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정착하는 새만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두는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고, 의료계가 임상수련 기능은 서울에 두는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방 캠퍼스를 사실상 기초과정 수용시설로 격하시키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임박 취지와 의무복무제의 실효성을 함께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진료와 정착은 임상수련 단계에서 결정되며, 일부 과정만 운영하는 지방 캠퍼스는 정주인구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울산대 의대와 아산병원”과 관련 “학교는 지역에 두고 수련은 서울에서 하는 구조는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는 데 37년과 지자체 예산, 교육부의 시정권고까지 필요했고 그마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립의전원이 울산대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

또 “남원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남부권 중심축에 위치해 충청 이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임지를 갖추고 있다”며 “광주·전주·순천·진주는 1시간, 대전·대구·여수·목포는 1시간 30분 거리이다. 도내 인접 시군에 그치지 않고 영호남을 함께 포괄하는 남부권 광역 의료권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라고 남원이 전략적 요충지임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신축할 예산의 절반 이하로 지방에 빅5급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착공 전인 지금 남원 이전을 결단해 달라”며 “남부권 국가 공공의료 거점 구축하고 서울 국립의료원 부지에는 청년주택 공급해 청년 주택난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미래 100년 밑그림... 메가프로젝트 발굴 시동

3천억 이상 대형사업 10건 이상
기업인·전문가 추진단 이달 출범
동부권 산악관광 개발사업 발굴

전북도가 미래 100년을 이룰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본격 나선다.

도는 18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전북 메가프로젝트 발굴추진단’ 구성을 비롯해 동부권 산악관광 개발, 전북형 비자 사다리 구축, 지역필수시설 도입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전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중대한 과제인 만큼, 추진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과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10건 이상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부지사를 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경제·일자리 ▲미래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해양수산 ▲균형발전SOC ▲환경·교육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부의 국가재정 투자 방향과 도정 운영 방향에 연계한 지역 강점 기반 특화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정치

권과 협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지사는 지리산과 덕유산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동부권 관광 개발에 무게를 실으며, 산림청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가을 자원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초기 방제에 나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한 해법으로는 ‘전북형 비자 사다리(전북형 이민비자 체계)’가 거론됐다.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단계별로 있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대학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와 SRT 통합 운영에 따른 효과를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통합 운영으로 호남권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고 좌석 공급도 확대돼 교통 편의성이 향상된다”며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역필수시설’ 사업과 관련해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북의 의료 인프라와 역량 전반을 끌어올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ipsi.wku.ac.kr

원하는대로
원더랜드
원광대학교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 2024년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선정대학

+ Since 2026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통합

+ 국내최초 다학년제 (4년제-2년제) 운영

2027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혜택

친구와 함께 입학하면
어패동무 장학금
100만원

2년제 학과 학생들을 위한
2U 장학금
1년 등록금
면제

신입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우대
통학버스
1년 무료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2026.09.07 일 —09.11 일

GLOBAL 30
WONKWANG
UNIVERSITY

농진청, 우수보리종자 11품종 농가 보급

21일부터 내달 4일
5개 품종 신청
내달 8일부터 6개
품종 선작순 판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우수 보리 종자 11품종을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급 품종은 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좋고 가공 적성이 뛰어난 △겉보리 4품종 △쌀보리 3품종 △맥주보리 4품종 등이다. 종자 신청은 기관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관련해 국립식량과학원 공급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5개 품종(혜누리·혜맑은·백수정찰·참하리·강맥)을 신청받는다.

필요한 농업인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공급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내달 8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을 통해 6개 품종(쌀누리·혜미·강호청·호강·광맥·호단)을 선작순 판매한다.

종자 가격은 20kg 기준 겉보리와 맥주보리가 27,340원, 쌀보리가 28,920원이며, 자세한 안내는 8월 말 ‘종자광장’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급 보리 품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겉보리 : ‘쌀누리’와 ‘혜미’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효소 활성도(효소 역가)가 높아 엿기름용으로 뛰어나다.

‘혜누리’는 간 보호 기능 성분인 사포나린 함량이 가장 높고, ‘혜맑은’은 갈변 물질인 프로안토시아닌인 함량이 적어 식해를 만들었을 때 색이 변하지 않고 맑다.

쌀보리 : ‘백수정찰’은 밥을 지어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으며 찰기가 좋다. ‘강호청’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청색보리이며, ‘호강’은 병해와 쓰러짐(도복)에 강하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우수 보리 종자 11품종을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맥주보리 : ‘참하리’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10% 많고 알코올 발효 효율이 높다. ‘강맥’과 ‘호단’은 병에 강하고, ‘광맥’은 추위를 잘 견딘다.

농촌진흥청 맥류작물과 이정희 과장은 “재배 안정성과 가공 적성이 좋은

맞춤형 신품종을 적기에 보급해 농가의 품종 선택 폭을 넓히고, 국산 보리를 안정적으로 생산·이용함으로써 보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사랑 쇼핑축제’ 선포

23일까지 쇼핑과 문화
콘텐츠 한자리... 문화
예술 작품전시 ‘눈길’

전주롯데백화점이 새롭고 높아진 축제 ‘문화예술 전시작품전’을 기획해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오는 23일까지 쇼핑과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전주사랑 쇼핑축제’ 대규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주롯데백화점 축제는 지역문화인들의 문화예술을 전시부터 백화점 전층을 아우르는 화제의 팝업스토어까지 다양한 공간기획과 고객경험이 핵심이다.

특히 축제에서 전문 예술 단체 ‘미술 공감채움’과 함께 선보이는 ‘아트스퀘어(8월 14일부터)’ 전시는 2층부터 4층까지 주요 공간을 감각적인 갤러리로 전시장을 채운다.

이와 함께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쇼핑 공간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작품전시다.

전주롯데백화점은 이번 축제를 통해 고객의 시선이 머무르는 쇼핑공간 곳곳에서 ‘일상의 틈새를 온기로 채우는 다정한 예술’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사 주요 내용은 △6층 이벤트를 ‘캐릭터 올스타전(8월 16일~9월 3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캐릭터 테마 공간 △지하 1층 식품관 ‘빵지순례’ 테마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시오팡아, 정남미명과, 송화당, 온신당, 도너츠 방앗간 등 입소문 난 베이커리, 디저트 맛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축제의 열기를 더할 역대급 뷰티 행사도 마련된다. 1층 화장품 코너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회 슈퍼 뷰티 페스티벌’을 열어 전주점 단독 기획세트와 선작순 무료 샘플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 말론 런던, 로에베 퍼퓸 등 해외 유명 향수 브랜드의 단독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오는 23일까지 쇼핑과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전주사랑 쇼핑축제’ 대규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젊은 세대의 핵심 문화로 떠오른 꾸미기 트렌드를 집약한 ‘별다꾸’ 팝업스토어, 여름철 대표 주름 옷 브랜드인 ‘플리츠미’ 팝업스토어가 기간 중 열린다. 아울러 아웃도어와 골프, 스포츠, 잔·컬처 캐주얼 상품군에서도 행사 첫 주말에 다양한 시은품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최동희 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전주점을 특별한 공간기획과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 구현해 고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매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인공지능 개발·활용
효율성 넘어 핵심 윤리
가치 실천 기준 마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공공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AI윤리원칙 수립, AI윤리 교육

이수)를 충족하는 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인공지능 활용 5대 기본 원칙 △인간 존엄성 존중 △국민 권리의 보호 △공정성과 공익 증진 △사회적 책임의 실현 △협력적 거버넌스 및 교육 확산을 명문화했다.

국민연금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효율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존중, 공정성, 책임성’ 등 핵심 윤리가치 실천 기준을 마련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올해 실질적인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을 실시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윤리적 소양과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활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부문 AI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국민연금>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교두보’ 마련

메가어스 엑스포 개최

전북중기청(청장 장상만)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市)에서 ‘메가어스 엑스포 2026(Mega-US Expo 2026)’을 개최한다.

특히 전북중기청과 호치민시 과학기술부(HCMC DST)가 공동 주최하는 본 행사는 ‘메가어스 엑스포 2026’는 지역 내 유망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는 ‘22년 12개 기관 및 80개 기업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29개 기관, 약 159개 기업이 참여하며 수출 지원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다.

관련해 전북중기청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매칭을 통해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호치민시 등 현지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디렉토리북’ 제작으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수출컨소시엄 사업과 연

계해 체계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엑스포 행사가 진행되는 27일~29일까지는 화이트 팔레스(WHITE PALACE)에서 B2B 및 B2C 전시관이 운영된다.

한국-베트남 대학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겨루는 ‘유니브 스타(Univ.Star)’ 창업경진대회와 투자자 매칭 및 상담 위한 ‘벤처 스타(Venture.Star)’ IR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돼 우리 기업들의 기술풍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오는 28일 오후 ‘GBNS(Global Business Networking Session) 2026’을 개최해 한국-베트남 참여기업 등 관계자들과 자율적으로 네트워킹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공한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메가어스 엑스포 2026을 통해 전북 지역 우수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이라는 거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농협 창립 65주년 ‘총화상’ 낭산농협 수상

조합원·임직원 신뢰 결실

농협 창립 65주년 농협중앙회 선정 ‘총화상’에 낭산농협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총화상’은 임직원 간 화합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농협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그간 낭산농협은 조합원 위한 다양한 경제·신용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영농활동 지원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서 낭산농협은 △조합원과 임직원 하나 된 마음 ‘협동조합 가치’ 실천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에 대한 노력 등을 인정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림 조합장은 “이번 총화상 수상은 임직원·조합원 모두의 높은 신뢰와 성원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업인 실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낭산농협은 이어 조합원 중심의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농협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제12회 쌀의 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제12회 쌀의 날’ 쌀소비촉진 퍼포먼스·고품질 쌀 시상·쌀 홍보·시식·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쌀의 날’은 한자 쌀 米(mi)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 한 톨을 생산하기까지 농업인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농식품부가 지정한 날로, 올해 12회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를 잇는 한 톨’이라는 주제로 쌀이 지닌 역사적·생활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고품질 우수 품종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 자체 품종 품질평가를 거쳐 평가 품종 후보군을 확정한다.

확정된 고품질 쌀은 6주간의 국민과 전문가의 관능적 식미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품종을 시상한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차세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 임원진, 피오나 머레이 리플 아시아 태평양(APAC) 총괄 디렉터, 리플 핵심 경영진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전북은행은 “전북은행과 맺은 이번 파트너십은 국내 기관 금융 시장 전반의 디지털 자산을 도입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주요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원 전북은행 은행장은 “리플과의 이번 파트너십이 전북은행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 세계 청년 390여 명 정읍 찾아… 모국연수 마무리

전 세계에서 모국을 찾은 한인 청년과 국내 대학생 등 390여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정읍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2026 차세대동포(청년) 모국 초청연수’의 세 번째 정읍 방문 일정을 끝으로 올해 지역 연계 연수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했다.

정읍 방문은 지난 7월 17일 첫 일정을 시작으로 7월 31일과 8월 14일 모두 세 차례 진행됐다. 세계 각지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과 국내 대학생들은 함께 정읍을 둘러보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서로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아 혁명의 역사와 민주정신을 되새겼다. 영상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전통예절과 선비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정신과 정읍의 문화적 뿌리도 익혔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서 모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온 과정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재외동포 청년과 국내 대학생들이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연수가 모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과 정읍을 알리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하반기 시민교양강좌 ‘풍성’

익산시가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취미부터 자기계발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마련한다.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7개 시립도서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열린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학습 수요를 반영해 독서·인문, 여가·취미, 정보화, 자격증 등 총 2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독서·인문 분야에서는 시조와 글쓰기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여가·취미 분야에서는 어반트로잉과 사진, 서예 등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등 정보화 교육과 독서지도사·그림책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도 마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직장인 등 낮 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야간강좌도 운영한다. 수채화 캘리그래피와 영어회화, 손뜨개질과 소품 만들기 등 7개 과정을 저녁 시간에 편성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좌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영등·부송·유천·금마·황등도서관은 12월 4일까지, 모현·마동도서관은 12월 11일까지 각각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은 19일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도서관에서 배움과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내장상동 솔가 어르신 70여 명에 냉면 나눔

정읍시 내장상동에 있는 솔가 숲길갈비 정읍점(대표 이용훈)이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 70여 명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했다.

이용훈 대표는 18일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초청해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마련했다.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다.

이 대표의 이웃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이 이용하는 공유병창고에 전해달라며 65만원 상당의 갈비탕 50인분을 기탁했다.

이용훈 대표는 “날씨가 무척 더운데 어르신들이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실시

○정읍시가 18일부터 오는 21일 까지 나흘간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2026 을지연습’을 진행한다.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을 실시해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모였는지 확인하고 전시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이어 최초 상황보고와 전시 조직편성, 부서별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연습은 달라지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제 위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분산·이동 훈련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도 실시한다.

부서별 임무 수행 능력과 기관 간 연락체계, 상황별 대응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정읍시 제2청사에서는 자폭형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벌인다.

군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현장 통제 등 기관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이학수 시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모든 직원이 실제 상황이라는 자세로 맡은 임무와 대응절차를 철저히 익혀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오늘 전 직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기관별 전시 임무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군산해경은 위기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와 기능에 따른 초동조치, 상황전파, 지휘·통제, 관계기관 협조 등 단계별 대응절차가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을지연습은 비상상황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대응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특히 드론 테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소방서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전시 비상대비계획 검토와 기관별 대응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소방서는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 상황 조치능력을 배양하고, 최신 기술기반 안보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 작제편성 훈련, 기관 소산·이동 훈련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훈련 3일 차인 20일 오후 2시에는 전국 동시 소방자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익산소방서는 신동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해 익산시청까지 이어지는 2.5km 구간에서 20분간 실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역종합

익산시 ‘착한가격’ 지키는 업소 찾는다

28일까지 모집

익산시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는 ‘착한가격업소’를 찾는다.

익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 친절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업소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인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경영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업소에는 △인증 표찰 부착 △희망 물품 구입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익산시>

착한가격업소에서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다이로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의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가격 수준과 대표 매뉴,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평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벚꽃 눈에 돌려주면 최대 75만원”

정읍시가 올해 940ha 규모의 벚꽃원 원사업을 추진하며 내달 4일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읍지역 농업인이다. 지원액은 1ha당 25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3ha까지 신청할 수 있어 최고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쌀경쟁력제고사업’의 하나인 벚꽃원원사업은 벼를 수확한 뒤 벚꽃을 잘게 잘라 눈에 되돌려 넣는 방식이다. 벚꽃이 썩으면서 흡수 유기물을 늘리고 땅심을 높여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청 면적이 계획한 940ha를 넘으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중소농을 우선 고려해 농가별 지원 면적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께 벚꽃을 실제로 눈에 되돌려 넣었는지 확인한 뒤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토양을 건강하게 가꾸고 안정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군산시>

NH농협 군산시지부, 군산시에 2000만원 기탁

NH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는 18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기탁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NH농협 군산시지부 임직원 189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NH농협 군산시지부는 그동안 농업인의 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자금 무상 공급, 농업인 무이자 자금 지원, 취약 농가 인력 지원 등을 이어왔다.

김범석 NH농협 군산시지부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이 군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오랫동안 군산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신 NH농협 군산시지부 임직원 여러분의 기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가구 집수리 ‘추진’

익산시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에 선정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발굴해 지원했다.

대상 가구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오랫동안 집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한 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하고, 집 안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달 3일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진행했다. 천장 보수와 욕실 공사를 비롯해 단열공사,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전반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공공·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해 가구별 상황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고등학교까지 확대 총 5,138명 건강권 보장

군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는 명실상부한 대표 교육·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및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그해 겨울방학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

며, 시행 직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에 시는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했다. 2025년에는 사업 대상을 다 함께돌봄센터까지 넓혔으며, 나아가 2026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전격 확대해 수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했다.

그 결과, 2026년 여름방학까지 총 5,138명의 학생에게 9만 7,749개의 건강 도시락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학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경제 효과를 선물했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동네약국과 “복지망 촘촘히”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견

익산시가 지역 약국들과 손을 잡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아 나선다.

익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시약사회와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동네 약국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활용해 위기가구를 일찍 찾아내고 신

속한 복지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약사회는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 가운데 생활고나 돌봄 공백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웃을 발견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소통 창구인 ‘익산주민톡’을 통해 신속히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접수된 가구의 형편과 필요한 도움을 즉시 확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금과 민간 후원 물품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양 기관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특화 지원 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수 익산시약사회장은 “약국은 시

민의 건강은 물론 일상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공간”이라며 “회원 약국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기관과 단체로 협력을 넓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사용료 감면·관리계획 취득 등 총 8건 심의

군산시가 18일 ‘2026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심의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연구기관, 장애인복지단체, 사회취약계층 등의 공익적 역할 수행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5건과,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3건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사업 추진 목적의 정당성과 법령 적합성, 공익적 목적 및 재산 활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자문기구로, 현재 군산시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 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상수도 정비에 400억 투입

향후 5년간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관리 최고 수준 물 복지 실현

고창군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상수도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에 나선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310억원)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사업(44억원) △상수도시설 통합관

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46억원) 등 3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면서 첫 발을 뒀다.

2031년까지 6년간 무장·해리·흥덕 급수구역의 노후관 교체, 관망정비, GIS 시스템 구축 및 누수 탐사 등이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던 누수 손실을 막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문업체 누수탐사, 블록 고립, 단계 시험 등을 실시해 누수 지점을 신

속히 찾아 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창군은 사업지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누수로 버려지는 수도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도 단수 걱정 없는 선진 수도 행정 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김성재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을 365일 차질 없이 공급해 최고 수준의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실전형 을지연습 ‘돌입’

전시 전환 절차 등 숙달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부안군은 18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열고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습 개시 상황 보고와 군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사 및 정부 연습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대비 절차와 방법을 익히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훈련



<사진=부안군>

이다. 부안군은 이번 연습 기간 동안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닮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을지연습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쳐서는 안 되며, 만약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모두가 엄중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전시 전환 절차와 임무 수행 방법을 철저히 숙달해, 이번 을지연습의 목표를 완벽히 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김제 ‘을지연습’ 시작 2(題)

고창군 “위기상황 관리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6년 을지연습’을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에는 고창군을 비롯한, 고창대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는 실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제훈련과 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을지연습 첫날 공무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비상소집 명령 전달체계,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 장비의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최초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적제 편성 훈련과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창설기구 설치 및 운영 훈련 등을 통해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임무 숙지와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을 토의한다.

연습 2일차부터 3일까지는 전시 이재민 수용소 화재 발생 대응을 주제로 도상연습을,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화재 대피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에는 공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을지연습을 통해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 관리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며 빈틈 없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김제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총무시설에서 간부 공무원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2026년 을지연습 시작을 알리는 최초 상황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체계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인 전시, 테러, 재난 상황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시와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도상연습 및 전시현안과제 토의 등을 통해 비상대비체

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와 대응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특히, 을지연습 2일차인 오는 오후 3시, 김제 GS칼텍스 물류센터에서 진행될 실제훈련인 ‘사회기반시설 드론 테러 대응 훈련’과 20일 오후 2시, 모다아울렛에서 진행될 공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통한 민·관·군·경·소방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향상을 목표로하고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으로 유관기관 간 대응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민주당 ‘원팀’… 현안 해결 힘 모아

국가예산 1조원 대형 국책사업 공동 대응

김제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와 민선9기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팀 김제’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이정자 김제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김제시-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한 민선9기 시장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도 21호선 확장사업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재원 마련 △두류(논봉) 공공비축 수매물량 현행 유지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공보 협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김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김제시 주요 사업이 국가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과 미래산업, 지역경제 등 김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지금, ‘함께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말처럼 김제에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이라며 “김제의 미래가 걸린 국가예산과 핵심 현안 하나하나를 끝까지 풀어나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민주당 ‘원팀’… 현안 해결 힘 모아

국가예산 1조원 대형 국책사업 공동 대응

김제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와 민선9기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팀 김제’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이정자 김제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김제시-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한 민선9기 시장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도 21호선 확장사업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설추추모공원 조성사업 재원 마련 △두류(논봉) 공공비축 수매물량 현행 유지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공보 협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김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김제시 주요 사업이 국가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과 미래산업, 지역경제 등 김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지금, ‘함께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말처럼 김제에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이라며 “김제의 미래가 걸린 국가예산과 핵심 현안 하나하나를 끝까지 풀어나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민주당 ‘원팀’… 현안 해결 힘 모아

국가예산 1조원 대형 국책사업 공동 대응

김제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와 민선9기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팀 김제’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이정자 김제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김제시-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한 민선9기 시장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도 21호선 확장사업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설추추모공원 조성사업 재원 마련 △두류(논봉) 공공비축 수매물량 현행 유지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공보 협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김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김제시 주요 사업이 국가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과 미래산업, 지역경제 등 김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지금, ‘함께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말처럼 김제에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이라며 “김제의 미래가 걸린 국가예산과 핵심 현안 하나하나를 끝까지 풀어나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재정집행 평가 ‘우수’

표창 및 인센티브 확보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며 지난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인센티브 1억원에 이어 상반기 총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지역 상권과 민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소비·투자 분야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확보한 인센티브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투입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보된 재원이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8월 의원간담회 개최

주요 현안 등 안건 18건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는 지난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8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음 회기인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 및 의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회 소관 안건 4건을 포함해, 집행부로부터는 지역 현안 사업 및 주민 복지, 도시 개발과 직결된 14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김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용역 추진을 위한 품용역비 사용계획(안)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연휴계획 보고 △김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등으로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보고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사진=김제시의회>

과정 중 주민 소통 강화 및 주변지역 보상지원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평선축제 연휴계획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등 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PPT 시각 자료 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이정자 의장은 “이번 의원간담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시정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다양한 제언과 당부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맞벌이 가정 돌봄공백 해소

‘여름방학 틈새돌봄’ 운영

고창군이 여름방학 초등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여름방학 초등학생 틈새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틈새돌봄은 방학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씨미트지역아동센터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 △고창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와 씨미트지역아동센터,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하며, 고창지역아동센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

돌봄센터’를 운영해 가정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센터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정원 외 초등학생도 여유 인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동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여유 인원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참여 아동에게는 각종 돌봄 프로그램과 함께 점심·저녁 및 간식을 제공하고, 센터별 안전관리와 아동 등·하원 관리도 실시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가뭄·폭염 대비 농작물 보호

관수·관비 시설 수요조사

부안군은 노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관수·관비 시설을, 시설하우스에서 농사짓는 농가에는 폭염 예방 쿨링시스템을 지원하며 불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뭄에 취약한 노지채소 밭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댈 수 있는 시설을 놓아주고 시설하우스에는 외부미스트와 환풍기, 자동제어장치를 갖춘 환풍기시스템을 설치해 한여름 하우스 안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두 사업 모두 최근 자체비·인건비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

원 규모를 늘리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무게를 뒀다.

군은 앞으로도 폭염에 대비해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선제적 농작물 폭염 대응을 위해 벌써부터 내년 여름 시설하우스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사업과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확대를 위한 관수·관비 시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요조사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하 농업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내달 4일까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김제시는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점검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김제시니어클럽,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김제노인복지센터, 성암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총 9개 수행기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참여자 모집·선정 및 관리 △활동근무관리 및 활동비·인건비 지급 △참여자 교육 및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및 관련 증빙서류 관리 △수행기관 담당인력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보완,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의견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AI 크리에이터 루키즈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AI 기술을 활용한 로컬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AI 크리에이터 루키즈 2기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크리에이터 루키즈는 만 60세 미만 농민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AI 도구 활용 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기를 통해 AI 비즈니스 실무 역량을 갖춘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30개의 콘텐츠를 교육생이 직접 기획·제작했다.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자체 콘텐츠 중 14편의 작품을 글로벌 AI 영상 에디터 ‘캡컷(CapCut)’이 개최하는 세계적 AI 영상 공모전인 ‘CREATE AI 페스티벌’에 직접 출품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추진단은 수강생들의 작품이 공모전에 출품돼 부안의 매력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2기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추진단 사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공음면, 통합돌봄 어르신 기후대응 물품 전달

고창군 공음면이 ‘통합돌봄서비스 기후대응 문안드림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음면 주민행복센터 맞춤형복지팀과 김애숙 공음면장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이온음료와 보리음료 등 기후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확인하는 등 안부를 세심하게 살핀다.

공음면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함께 살피며 안부를 확인했다.

특히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가뭄 장기화에 물관리 총력 2(題)

양충모 남원시장, 주요 물관리 현장 점검

양충모 남원시장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양 시장은 18일 월락정수장을 시작으로 인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산내 대정하수처리장, 만수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월락정수장에서는 상수도 공급체계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기후변화와 가뭄 등 급변하는 여건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인 급수체계 관리를 주문했다.

순창군, 폭염·가뭄에 수도물 공급 비상대응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철 강수량 부족으로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에 나섰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수도물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물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수돗물 절약 실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물 절약 실천 방법은 △양치할 때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을 채운 페트병 넣기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하기 △빨랫감 한꺼번에 세탁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시설과 누수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가뭄 상황과 수도물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노력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생활수돗물 절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전북 임도사업 평가 ‘간선임도 1위’

2026 종합평가서 우수 성과 동계 현포리 구간 높은 점수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6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간선임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평가에서 2025년 준공된 임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임도 노선의 적정성, 시공 품질, 구조물 안전성, 배수시설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립 내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로, 벌채·조림·숯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은 물론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 등 체계적인 산림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이다. 산립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또한 높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술사 등 산립토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2025년 완공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사진=순창군>

를 실시해 임도 노선의 적정성과 시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2025년 동계면 현포리에 개설한 간선임도는 노면 안정성과 배수시설의 양호한 시공 상태, 구조물의 안전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식생피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임도는 적성면 괴정리에서 동계면 서호리를 거쳐 동계면 현포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산립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소방서, 20일 봉동·혁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진행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20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해 봉동읍과 혁신도시 일원에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긴급차량 운행에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동지역에서는 20분간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경찰서까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훈련을 진행한다. 경찰차를 선두로 방송차, 지휘차, 급급차, 펌프차, 소형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차 등이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 종료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생강골시장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펼친다.

혁신지역에서도 같은 시간 상가밀집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펌프차, 급급차, 굴절차 등이 실제 주행하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하는 등 주변 교통상황에 맞게 진로를 확보해야 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만인공원 본격화…구 역사 철거 착수

국·도비88억 반납 위기 선제 대응 304억 투입 8만2천㎡ 규모 추진

남원시가 오랜 숙원인 만인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구 남원 역사 철거에 전격 착수했다.

구 역사 철거는 이미 확정된 행정절차였으며, 시는 2028년까지 해당 부지를 ‘역사 생태 만인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구 남원역 일원 8만2,635㎡에 304억원을 투입해 만인의 총·남원읍성·광한루원 등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만인의총과 남원읍성, 광한루원 등 남원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역사·문화·생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0여 년간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공모전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며 시민 의견을 다양한 제안과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 역사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유산청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재 건물은 1986년 건립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니며 보존 가치가 낮다고 밝혔다.

시는 구 역사의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기록화와 철도 흔적의 재현’을 통해 옛 남원역의 장소성과 시민들의 삶의 기억을 공원 내에 입체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원 부지 내에 스피릿폼 재설치(2~3경간) △급수탑 및 구 역사 미니여저 제작 △기존

철도레일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구 남원역 일원에는 △만인공원 조성(304억원)을 비롯해 △생태공원 조성(100억원) △남원읍성 및 북문 복원(330억원)등 총 734억원 규모의 대형 연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만인공원 및 생태공원 사업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미 확보한 국비 38억 원과 도비 50억 원 등 총 88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건박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매몰비용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11월 말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마무리, 내년 본격 공사를 거쳐 2028년 만인공원을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을지연습 돌입…비상대응 역량 점검

21일까지 민관군경 400명 참여 불시 비상소집 응소율 100%

남원시는 전시 위기관리연습을 시작으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범국민 차원 비상대비 훈련인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남원시,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군부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고,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도상연습, 현안과제 토의, 중무계획 숙지, 전시직제편성훈련, 민방위훈련, 실제훈련 등을 중점항목으로 점검·훈련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다소 형식적이었던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해 긴장감을 높이고 평소

행정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해 응소율 100%로 훈련 대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도상연습에서는 정부·자치단체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중앙통제 메시지·도 자체 메시지를 처리하게 된다.

전시 현안 과제 토의에선 전시 예산편성 및 운용 계획 및 전시 수용시설 질병관리 및 의료지원 대책을 논의했고, 20일 10시에 실시되는 민·관·군·경·소방 100여명이 참여해 △폭탄 및 드론 테러에 의한 인질납치, 테러범 진압 대테러 작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전시체결반 운영 활동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민방공대피 훈련을 남원시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전북 최초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마무리

순창군이 전북도 최초로 운영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4개월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징수와 복지 연계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적극행정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역 청년 2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배치하고, 전체 체납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남부독려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생활여건을 직접 확인해 자진납부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변호관 영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 1억 1,400만원을 징수해 약 2천만원의 인건비 투입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징수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북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명품가방·귀금속 등 동산 19점을 압류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로 2026년 상반기 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는 도내 선도모델로 평가받아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지원정책 기초자료 마련

(재)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예술인의 현황과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환경 개선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6 완주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026년 8월 한 달간이며, 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결과공유회를 통해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두 달 만에 매출 2억

누적 매출 2억1천만원 달성

유통 거품 줄여 농가수익 환원

완주군과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가 피해 및 물가 상승에 대응해 추진한 완주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누적 매출 2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서울시 ‘동행상회’ 공급업체로 선정돼 신선농산물과 축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완주군청 로비를 순회하며 정기 장터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농가가 생산한 농



<사진=완주군>

산물과 가공품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전달 수급해 판매한 뒤, 최소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전체를 농가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해 유통 거품을 줄였다.

장터별 1일 평균 매출은 서울에너지공사 380만 원, 서울시 동행상회 250만 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300만 원, 완주군청 장터 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

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향후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체로 확장하고, 참여 농가 발굴과 품목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상설 및 정기 장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시민 일자리 인식·정책 수요 파악 나서

2026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실시 7개 부문 50개 항목 조사 진행

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내 표본 864가구의 만 19~70세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남원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호남지방데이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남원시민의 취업 실태와 취업 희망 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반에 관

한 실태를 3년주기로 조사한다.

특히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기분사향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 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 등 7개 부문, 총 50개 항목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실제로 느

끼는 고용 여건과 필요로 하는 일자리,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등을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승인통계로 실시되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고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9월부터 5회 맞춤형 강좌 운영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 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주민 맞춤형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하며 삶과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는 인문 프로그램이다. 고산도서관은 성인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살고 있다’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음식과 고전, 맥주, 영화 등 친숙한 소재를 인문학적 시각과 연결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구성했다.

음식에 담긴 역사·문화를 다루는 ‘식탁 위에 올라온 인문학’을 시작으로 ‘고전으로 치유하는 소통 인문학’, ‘맥주 한 잔에 담긴 인문학’, ‘영화로 만나는 웰다잉 인문학’ 등을 차례로 선보인다. 특히 4회차 ‘길 위에서 만난 인문학’ 과정에서는 오성제 숲길 탐방과 대문밖 만들기 체험을 연계해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완주=김명곤기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말복 맞이 사골만두국 나눔 행사

김제시는 지난 14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에서 두꺼비회관(대표 박옥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회장 황인환)의 후원으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말복 맞이 사골 만두국 특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복을 맞아 계속된 무더위로 지친 장애인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꺼비회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정성껏 마련한 사골만두국을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대접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이웃의 건강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황인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장은 “이번 나눔이 무더위로 지친 장애인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고산면지사협 자원봉사센터와 팔빙수 나눔

완주군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경순, 국혜숙)가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14일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시원한 팔빙수를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속에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팔빙수를 전달하며 수분 섭취 안내 등 어르신들의 폭염 속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이경순 공동위원장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팔빙수와 함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기관들이 협력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서해로타리클럽, 생수 5000병 기탁

위도면 식도 주민에 전달

부안서해로타리클럽(회장 임찬섭)은 지난 15일에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도면 식도 주민들을 위해 500ml 생수 5,000병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위도면 식도는 94세대, 13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 지역으로, 당시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식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부안서해로타리클럽은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나눔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탁을 주도한 임찬섭 부안서해로타리클럽 회장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고통을 겪으셨던 식도 주민분들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생수를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부안서해로타리클럽은 부안군을 대표하는 봉사 단체로서 지역 사회의 아픔을 가장 먼저 살피고, 주민들 곁에서 늘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굳은 다짐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서해로타리클럽은 지난 15일 위도면 식도 주민들을 위해 500ml 생수 5,000병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완주 삼례농협 강신학 조합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농업인 실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완주군 삼례농협 강신학 조합장이 최근 ‘농협 창립기념 65주년’ 기념식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강 조합장은 오랜 기간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촌 복지 향상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조합장은 1993년 농협에 입사, 30년 이상 근무하다 2019년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원의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해 완주삼례딸기 축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써왔다.

또한 경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며, 삼례농협을 전국 최고 수준의 농협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부안면지사협, 홀어르신 생신 축하

직접 방문해 떡케이크 전달

고창군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두용)가 지난 14일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날 맞춤형 떡케이크를 전달하는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어르신의 생신을 맞이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떡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했다.

송두용 민간위원장은 “소소한 케이크와 축하 인사지만 어르신께 고맙감에서 해소되고 삶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웅포-낭산 어르신에 여름나기 꾸러미 전달

익산시에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나눔이 전해졌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면과 낭산면은 이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가정을 찾아 여름나기 꾸러미를 전달했다.

꾸러미는 지난 13일 익산시북부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중수)이 웅포면과 낭산면에 각각 10개씩 총 20개를 기탁한 것으로, 여름이 불과 영양제 등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물품으

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은 복지관이 추진한 카카오톡이가지 ‘폭염 속 어르신의 여름나기, 함께 지켜주세요’ 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웅포면과 낭산면은 저소득·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선정해 꾸러미를 지원했다. 특히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힘썼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감곡면 새마을부녀회 현옷 모아 이웃사랑 실천

정읍시 감곡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숙)가 마을 집집마다 돌며 버려질 현옷을 모아 이웃사랑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했다.

부녀회는 지난 13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옷 수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각 가정에 방치됐거나 버려질 예정이던 옷을 집중적으로 모았다.

이번 활동은 현옷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되살리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도 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흥남동 ‘진각’ 착한가게 가입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원태)는 18일 진각(대표 임지혜)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진각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게 됐다.

임지혜 진각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흥남동 관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결론

정민제 군
정영득 전주비전대교수, 김복희(전 우림종교사) 장남
홍윤희 양
홍성익, 김선희 장녀

일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소 :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서초구 신반포) 5층 그랜드볼룸

올바른 에어컨 사용 전략!

에너지 효율 UP! 전기요금 DWON!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사용하기



2.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3. 에어컨 바람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설정하기



4.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一事一言〉



전북이 밀어 올린 김민석, 이제 통합과 성과로 답하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당의 통합과 쇄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다. 김 대표의 당선은 축하하면서도 이제부터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선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전북과 호남의 선택이다.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는 58.39%를 얻어 34.00%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섰다. 호남 전체에서도 57%가 넘는 지지를 얻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진 상황에서 전북과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는 김 대표가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전북 당원들이 김 대표에게 몰아준 표에는 단순한 후보 선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민주당의 변화와 통합을 바라는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어려움을 때마다 굳건한 지지 기반이 되어 온 곳이 호남이고 전북이다. 새 지도부는 이 선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전북의 지지가 당대표 개인이나 특정 세력을 향한 정치적 청구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전북이 원하는 보답은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고,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새만금을 비롯한 국가 사업과 산업 기반 확충, 기업 유치, SOC,

지역 균형발전 등 전북의 미래가 걸린 현안이 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김민석 대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당의 화합이다. 치열한 경선에서는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감정이 이어진다면 집권 여당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김 대표 역시 당선 직후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과 세력까지 끌어안는 포용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정치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까지 당 운영에 담아내야 한다. 계파와 진영을 넘어 당의 외연을 넓히지 못한다면 거대 여당의 힘은 오히려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정부와 여당의 관계다.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당정 일체'가 아니라 긴밀하고 생산적인 당정 협력이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무조건 추진해서도 안 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로 국정 혼선을 자초해서도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민생과 경제, 부동산 정책, 지역 균형발전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각종 개혁 입법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으면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

로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다. 그 힘이 일방적인 입법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야당과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끝없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다. 김민석 체제의 성패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성과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이 김 대표에게 보내준 58.39%의 지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대이며, 전북을 국가 성장의 변방이 아니라 한 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이제 경쟁의 시간도 끝났다.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서는 화합을 이루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유능한 민생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전북의 기대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려준다면 김민석 체제는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북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결실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김민석 대표의 진짜 평가는 당선의 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 시작될 것이다.

ㅣ 독자투고 ㅣ

플러그를 뽑는 순간, 안전이 켜집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재난문자를 여러번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 화재 예방요령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실외기 주변 가연물 및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과열 시 중단 ▲손상된 전선 교체 ▲사용 후 플러그 뽑기 등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일주일에도 한 번씩 받는 만큼, 폭염 속 전기화재 위험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도 사리고 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기와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전기제품의 이상 징후를 방치

하면 편리함을 주던 전기가 한순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때 콘센트 주변이 검게 그을리거나 멀티탭이 녹아있는 모습을 자주 마주하곤 했다. 전선이 벗겨져 있거나 플러그와 콘센트가 변색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흔적은 화재가 발생한 뒤 현장에서 발견되지만, 어쩌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화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불꽃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콘센트나 플러그에서 열이 느껴지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스위치를 켤 때 불꽃이 튀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는 현상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기설비에

이상 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차단기를 계속 임의로 올리기보다는 전기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여름철에는 특히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나 폐기물 등 가연물을 쌓아두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소비전력이 큰 냉방기나 전열기구는 가급적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손상된 전선이나 변형된 플러그는 임시로 고쳐 쓰지 말고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전기화재 예방은 거창한 점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재난안전문자의 안내를 한번 더 확인하고 집안팎의 전기설비를 점검해 보자. 오늘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령 김두철

사설

흔들리는 미국의 신뢰, 더 외로워진 한국 외교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외교와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가 오랜 동맹국들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도 그런 우려를 키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이란전의 명분과 장기화에 대한 논란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오랜 동맹국에 나눠 지우려 하고,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연합훈련까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과연 건강한 동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둘러싸고 전쟁의 명분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반도 방어와 직접 관계없는 전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동맹은 일방의 요구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국익과 안보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한국 외교를 더욱 외롭고 어려운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미국은 핵심 안보동맹이다. 여기에 중동전쟁과 통상, 대미 투자, 방위비 문제까지 얹히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외교적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냉정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미국과 맞서는 것도 위험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하되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관한 원칙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믿었던 동맹마저 언제든 자국의 이해를 앞세울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외롭고 힘든 시기를 맞고 있음을 자각하고, 정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오늘의시

휠체어 댄스 / 한 강

눈물은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다 삼키진 않았죠

나를 다 먹어치울 순 없어요

보세요
나는 춤을 춘답니다
타오르는 휠체어 위에서
어깨를 흔들어요

악몽도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가닥가닥 온몸의 혈관으로
타들어오는 불면의 밤도

오, 격렬히
어떤 마술도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등극해 문단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 2026년 8월 19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 TIMES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김제를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김제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 혹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제2의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시는 고향 사랑기금으로 모인 고마운 마음들을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곳을 찾아 소중하게 채워 넣고 있다.

기부자의 마음을 담아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편집자 주)



답례품은 지역경제 살리고 기부금은 시민 삶 보듬고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한 정책으로,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내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 혹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제2의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을 든든하게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김제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품성한 답례품

시는 지난 6월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15개 업체의 30개 품목을 추가 선정해 현재 총 46개 업체의 78개 품목이라는 품성한 답례품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김제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인 쌀이 답례품 매출의 약 32%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돼지고기, 한우, 누룽지, 모싯잎 송편, 군고구마 말랭이, 버섯 등이 사랑받고 있다.

또한 지역 특색을 담은 특화 상품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배주로 선정된 대비모주, 수제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옛날 그 맛의 타래약과 및 깨강정이 대표적이다. 체험형 답례품으로는 모악산 캠핑장 이용권, 압화 공예 체험권, 도자기 물레 체험권에 이어 이번엔 새롭게 추가된 블루베리 수확 체험권까지 마련돼 있다.

▼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사업

▷2024년

김제시 고향사랑기금의 첫 시작은 '상생'과 '돌봄'이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18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김제사랑카드로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왔다.

동시에 외롭게 지내는 치매 어르신 13세대에 복약 알람, GPS, 긴급 호출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AI) 돌봄인형'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2025년

2025년에는 기부금의 온기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됐다.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30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해 범죄 예방을 도왔고, 산단 조성으로 농경지를 잃은 농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김제형 마을자치연금'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을 보장했다.

나이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시설을 쾌적하게 바꾸는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2026년

현재도 고향사랑기부금은 김제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다.

먼저, 등하교 시 눈·비·폭염 등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 안심 스마트 승강장'을 검산초등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란도란 대어실'의 서비스를 확대해, 기존의 백일상·돌상 세트뿐만 아니라 한복, 드레스, 턱시도 등 다채로운 영유아 테마 의상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이어진다. '정성반찬 경로당 밀반찬 배달'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경로당에 따뜻한 식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제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며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응원하고 있다.

▷지정기부사업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기부자가 직접 사업내용을 보고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했다. 부모들의 갑작스러운 육아 공백을 채워줄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그 주인공이다. 6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최대 3일까지 공공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을 지속 모금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김제를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당신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소중한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동행'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김제시의 다채로운 답례품이 제공된다.

아이들에게 24시간 안전한 울타리를 선물하고 청년과 어르신의 일상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온라인 참여는 '고향사랑e음', '위기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타지에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김제를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